

나주시, ‘농기계임대·마을 공동급식’ 등 농가 지원 강화

농기계임대소, 비상근무 체제 전환
외국인근로자 등 인력운용 뒷받침
335개 마을 공동급식... 7.3억 투입

전남 나주시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영농철을 맞아 다양한 대책을 도입하여 농가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우선, 가축화 중인 농촌지역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농작업 인력난을 전남 최대 규모의 ‘임대농기계 사업소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을 통해 공백을 메꾸고 있다.

여기에 바쁜 영농철 가사와 노동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고 마을공동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격적인 영농철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6월15일까지 ‘영농 집중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나주시는 전남지역 지자체 중 가장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동수동 본점에서 출하 전 임대농기계를 정비하고 있다. /나주시

많은 총 7개 권역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유 임대 농기계는 영농형 굴삭기를 비롯해 퇴비살포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4종·1523대에 달한다. 화물차량이 없어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은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비용은 나주시가 7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또 나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형

계절근로자 60명과 농가에서 직접 고용한 600명을 포함해 총 660명의 근로자를 현장에 공급한다. 하반기 140명까지 더하면 올해 총 800명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맞춰 영농철 일손을 도울 외국인근로자들이 지난달 라오스 계절근로자에 이어 17일엔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71명이 나주로 온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도입한

가운데 올해도 335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급식을 지원한다.

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 일손이 달려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다반사인 농업인을 위해 마을 여건에 따라 자체 급식 또는 도시락 배달 등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고 건강도 챙기면서 마을 화합까지 다진다는 측면에서 일석삼조의 시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초 올해 지원 목표는 251개 마을이었으나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7억3000만원을 들여 공동급식을 신청한 335개 전체 마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부지깽이도 한 뭉치 거든다는 바쁜 영농철 나주시가 마련한 ‘3종 지원 세트’가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까지 포함해 든든한 한 끼를 챙기는 마을 공동급식이 마을 화합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진군-KB국민은행, ‘작은도서관 사업’ 맞손

울진군은 지난 14일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 만드는사람들이 ‘KB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성작은도서관은 130㎡ 규모로 공간 확장 등 재구성을 마친 후 내달 재개관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진군

목포시

수산식품산업 실무 TF 운영

목포시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 김거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 추진 TF(특별작업반)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1일 해양수산환경국장을 중심으로 한 9명의 실무 추진 TF를 구성하고, 시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분기별 회의를 통해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진주시, 내달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

내달 2일 개최식... 2만명 참가 예정

경남 진주시는 경남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인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2018년 개최 이후 7년 만에 다시 진주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민체육대회는 내달 2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4일간 진행되며 36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등 2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부강한 진주에서 하나된 경남의 힘’을 슬로건으로 열리며 이번 대회는 미래·문화·스포츠제전을 표방하며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문화예술행사, 산업기술, 체육이 어우러진 축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사상 최초로 축구·배구·농구 종목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중계를 실시하여 촬영된 영상을 관객들이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개막식이 열리는 진주종합경기장

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AAV 시제기 전시를 포함한 우주항공테마관을 열어 진주시의 미래 산업이 드러나도록 하는 ‘미래체전’으로 펼쳐진다.

또한 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 진주시의 대표 봄 축제 ‘진주논개제’를 연계 개최해 진주시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진주시가 가진 역사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체전’으로 치러진다.

뿐만 아니라 ‘2023 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이후 진주시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국제대회인 ‘2025 코리아인비테이셔널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포토존을 운영하고,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발상지 진주시의 자부심을 담은 파크골프 홍보 체험관 운영, KSPO 스포츠가치센터의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스포츠 체험 행사가 펼쳐지는 ‘스포츠제전’으로 추진한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덕군 일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경북 동해안 지질자원 가치 입증

영덕군은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면적 2,693.69㎢, 포함·경주·영덕·울진 일원)’이 지난 10일 밤(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의결돼 오는 17일 유네스코의 공식 통보를 통해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북한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의 대표적인 지질유산이 나란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자연유산의 지질학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한반도 최대의 신생대 화석산지, 동아시아 지체구조(tectonic framework) 형성과 화성활동(magmatism)의 주요 흔적, 다채로운 지질경관을 갖춘 지역으로, 학술적·교육적·관광적 가치가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영덕군은 경상북도의 지원을 토대로 포항시·경주시·울진군과 함께

지질공원 전담 기구인 ‘동해안 지질공원 사무국’을 중심으로 경북동해안지질공원센터를 운영하고, 안내소, 탐방로, 안내판 등 탐방 인프라 확충과 지질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기관과의 협업 등 유네스코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김광영 영덕군수(사진)는 “2015년 국가지질공원 신청을 시작으로 10년간 경북도와 4개 시·군 지역주민이 함께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생태관광지역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완도군, ‘도시 종합개발사업’ 추진

56개소 대상 국비 106억 투입

완도군(군수 신우철·사진)은 국비 106억 원을 투입, 56개소를 대상으로 ‘2025 도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시 종합개발사업은 도시 지역의 생활 기반 시설 정비·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하고자 행안부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군은 2017년도에 3차 계획을 마무리했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4차 계획



(총 사업비 1180억원)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비 106억 원을 투입, 금일읍소랑도·월송리와 보길면 예작리·청별 물양장 확장, 노화읍의 북고리·충도리 선착장 정비, 군외면 흑일도 도로 정비 및 LPG 배관망 설치, 청산면의 노을길 경관 조성 등 여서리 등산로 진입로 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도, 대통령 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

특정 후보 지지·비방 행위 등 점검

경상남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공직감찰을 추진한다.

이번 감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공무원의 특정 후보 지지·비방, 선거 개입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시군과 함께 합동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1단계는 행안부와 경남도가 합동

으로 2개 반 10명 규모로 운영하며 2단계는 시군까지 포함한 20개 반 46명 체제로 대폭 확대해 감찰을 벌인다.

경남도는 감찰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으로, 적발 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통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빈틈없이 관리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거창군

공모사업 순항... 380억 확보

경남 거창군은 지난달 말 현재 2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8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공모사업 확보 목표액 1000억원 중 3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선정(10억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200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50억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30억원) 등이다.

특히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선정은 전국 3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에 거창군이 이름을 올렸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